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11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2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12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12
III. 경영참고사항	13
1. 사업의 개요.....	13
가. 업계의 현황	13
나. 회사의 현황	2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5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27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6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70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7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02월 21일

회 사 명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 표 이 사 : 한 동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
(전 화) 02-6360-3000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류 승 현
(전 화) 02-6360-318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사내이사) 조용병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위성호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상경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주재성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Philippe Avril)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만우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상경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성량(Lee Steven Sung-ryang)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
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사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고부인 (출석률: 100%)	권태문 (출석률: 100%)	김석원 (출석률: 100%)	박철 (출석률: 100%)	이만우 (출석률: 100%)	이상경 (출석률: 100%)	이성량 (출석률: 100%)	이정일 (출석률: 100%)	이훈아 (출석률: 100%)	정진 (출석률: 0%)	허리카와 유키 (출석률: 100%)	필립 에이브릴 (출석률: 75%)	남궁훈 (출석률: 100%)	조용명 (출석률: 92%)	남궁훈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임시)	2016.02.04	1. 제15기(2015.1.1~2015.12.31) 결산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3. 그룹 경영진 장기보상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5년 그룹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추진실적 보고 3) 2015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 (임시)	2016.02.22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상환우선주 상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5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3) 2015년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4) 2015년 기말 결산 수정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1. 경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선임전
3 (정기)	2016.02.23	2. 이사회부 적정성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	-(주)	찬성	찬성	찬성	-(주)	-(주)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주)	찬성	찬성	선임전	
		3.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선임전	
		4.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4 (임시)	2016.03.24	1.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2.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3.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4.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사외이사제도 운영관련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5 (임시)	2016.05.19	1. "신선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주)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6 (정기)	2016.05.20	1.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6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3) 2015사업연도 그룹사 배당결과 보고 4) 상환우선주 상환 보고 5) 카드사 글로벌사업 추진 보고 6) 2016년 1/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7 (영시)	2016.07.21	1. 지배구조 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2. 신한금융투자 출자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3. 그룹 경영진 장기보상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8 (정기)	2016.08.17	1. 신증자본증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2) 2016년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3) 2016년 상반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4) 2016년 2/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9 (영시)	2016.10.25	1.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10 (정기)	2016.11.17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2) 2016년도 3/4분기 결산실적 보고																	
		3) 2016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																	
		4) 신한금융투자 출자 집행결과 보고																	
		5) 제1회 신증자본증권 조기상환 완료 보고																	
		6) 2016년 3/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11 (영시)	2016.12.13	1.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2. 2017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3.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신한 경영리더십 수립 프로젝트 도출(안)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12 (영시)	2016.12.28	1.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2. 이사회 등 운영실적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간성	퇴임	퇴임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간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주) 본인 심의안건 의결권 제한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운영 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위원장: 한동우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사외이사위원: 남궁훈, 이상경, 정진, 히라카와 유키	2016.02.2	1. 2016년도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결
		2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2.2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2016.03.2	1.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5.2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6.10.2 5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6.12.2 8	1. 이사회 등 운영실적 평가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리스크관리 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남궁훈, 박철, 필립 에이브릴 [2016년 3월 ~ 현재]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훈야, 필립 에이브릴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6.02.2 2	1.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2015년 4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5년 4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5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5년 고위험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6)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7) 신한은행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8) 해외 리스크 현황 보고 9) 기타 - 2016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10) 기타 - 2016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가결 -
		2016.03.2 4	1.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5.1 9	1.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가결
			2.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7.2 1	<보고사항> 1) 2016년 1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6년 1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6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6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6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신한은행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기타 -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보고	가결 -
			<심의사항> 1. 신한금융투자 출자에 대한 리스크 검토에 관한 사항	통과
		2016.08.1 7	1.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2016년 2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6년 2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6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6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6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가결 -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2016.11.17	1.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2016년 3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6년 3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6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6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6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기타 - 외부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 10) 기타 -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리스크요인 및 영향도 점검	-
		2016.12.13	1. 2017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 2. 2017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공시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2016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3)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보상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 위원장: 김석원 * 사외이사위원: 김석원, 박철, 이만우, 정진	2016.02.04	1. 2015년도 지주 CEO전략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6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6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4. 그룹 경영진 장기보상에 관한 사항	가결
			5. 2016년도 자회사 이사보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가결
	[2016년 3월 ~ 현재]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2016.03.14	1. 2016년도 그룹 KPI 및 경영진 전략과제 설정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5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안)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5년도 연차보상평가(안)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3.24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7.21	1. 2016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6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3. 그룹 경영진 장기보상에 관한 사항	가결			
	2016.10.25	1.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2. 자회사 경영진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4)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2016.02.0	1. 2016년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결

<p>* 위원장: 권태은</p> <p>* 사외이사위원: 권태은, 김석원, 이만우, 이상경</p> <p>[2016년 3월 ~ 현재]</p> <p>* 위원장: 이만우</p> <p>* 사외이사위원: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p>	4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2015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p> <p>2) 2016년도 감사팀 예산 계획 및 2015년도 집행 실적 보고</p> <p>3)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p> <p>4) 2016년도 자회사의 자체 감사계획 수립내용 점검 결과 보고</p> <p>5)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p>6) 그룹 준법감시인 2015년도 활동결과 및 2016년도 활동계획 보고</p>	-	
	2016.02.2	1. 2016회계연도 그룹 회계감사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가결	
		2. 제15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5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가결	
		4.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에 관한 사항	가결	
		5. 2016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에 관한 사항	가결	
	2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2015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p> <p>2) 201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p> <p>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p>4) 2015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p> <p>5) 2015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p>	-	
	2016.02.2	3	1. 제1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3.2	1. 감사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가결	
		2.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가결	
	4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고</p> <p>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	
	2016.05.1	1.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가결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p> <p>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p>3) 2015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결과 보고</p> <p>4) 2016년도 1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p>	-	
	2016.07.2	1.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가결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그룹내부통제규정 개정 보고</p> <p>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		
2016.08.2	5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2016년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p> <p>2)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고</p> <p>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p>4) 2016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p> <p>5) 2016년도 상반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p>	-	
2016.11.1	1.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가결		
	<p><보고 및 심의사항></p> <p>1)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p> <p>2) 2016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p>	-		

			3) IFRS 9 도입 준비 현황 보고 4) 2016년도 3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2016.12.28	1. 2017년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3. 2016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영업부문 및 영업권 평가단위 변경 보고 2)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보고 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 위원장: 남궁훈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권태은, 남궁훈, 박철, 히라카와 유키	2016.02.04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 실시 결과 보고 2) 2016년 사외이사 선임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운영프로세스	-	
	[2016년 3월 ~ 현재] * 위원장: 이성량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이성량, 이만우, 이정일, 이흔야	2016.02.23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가결 -
		2016.03.24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12.28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결

(6)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2016년 2월] * 위원장: 남궁훈 * 사외이사위원: 남궁훈, 고부인, 권태은, 김석원, 박철, 이만우, 이상경, 정진,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2016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위원: 고부인, 박철,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이흔야, 히라카와유키,	2016.02.23	1.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가결
			2. 감사위원회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필립 에이브릴 ※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	--	--	--

(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지배구조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 위원장: 이상경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고부인, 권태은, 남궁훈, 이상경, 필립 에이브릴	2016.03.24	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5.19	1.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가결	
	2.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6년 3월 ~ 현재]	* 위원장: 이상경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이상경, 고부인, 박철, 필립 에이브릴, 히라카와 유키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6.07.21	1.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가결 -
			2016.12.27	1.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관련 향후 절차 및 일정 등 논의에 관한 사항	가결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회책임경 영위원회	[2015년 3월 ~ 2016년 3월] * 위원장: 이만우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김석원,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2016.03.24	1.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6.05.19	1. 신한금융그룹 환경경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5년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보고 2) 협력사 사회책임경영 진단 및 지원 결과 보고 3) 2015년 그룹 사회공헌금액 보고 4) 2016년 지속가능경영 평가 일정 보고	가결 -
	2016.12.12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6년 그룹 사회책임경영 대외 평가 결과 보고 2) 2016년 그룹 사회책임경영 9대 전략별 이행현황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9	3,500	529	57	지급총액 이외에 필요경비성 비과세수당 79백만원 포함
비상임이사	2		47	27	

※ 인원수: 2016년 1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 지급총액/연환산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십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일	거래금액	비율(%)
자회사출자	신한금융투자(주) (자회사)	2016.09.06	500.0	1.81%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인 2015년말 기준 당사 별도 재무제표 상의 자산총계 27조 6,755억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16년은 '반전의 한 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었고,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블랙스완(Black Swan) 이벤트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및 3월로 예상되는 영국과 EU 국가들 간의 Brexit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불확실성의 연속'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일부 회복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 중심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 하에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국들의 경기에는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 확대를 자극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2016년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을 하에서 소비개선에 따른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은 2017년 중 완만한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신정부의 공약인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세 및 인프라 투자는 경기부양효과가 있으나, 실행 및 효과 발생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7년 중 미국의 성장을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유로존은 ECB의 완화적 통화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독일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의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벤트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등이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는 0%대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각국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엔고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 제2기 집정을 시작하는 시진핑 정부의 경제부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장모델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부채 문제 및 부동산 버블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로 성장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와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무역분쟁 요소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국내 경제는 2016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의 성장률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건설부문과 추경 등 정부지출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건설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침체 가능성으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2016년 4분기 성장률은 0%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장을 둔화 우려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에서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상계 관세 부과 추진 등의 조치는 국내 對中 중간재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수출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2017년도에는 美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유럽의 정치 이벤트 관련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기부진 심화,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이 상존하면서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먼저 민간소비의 경우 2016년 중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소비증가율이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소비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6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설비투자는 2017년에도 미약한 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율 정체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부문은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 및 해운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수출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편, 2017년 중 소비자물가는 고령화 및 가계부채 등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수요 기반의 물가상승압력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산유국 간의 감축 협상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 등 공급측면 요인으로 2016년보다는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6년 중 국내 채권시장은 내수부진에 따른 6월 기준금리 인하 및 저물가 지속,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3분기까지 전반적인 금리하락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서는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증대가 예상되면서 美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국고채 금리 역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중에는 경기부진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관리 부담 및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기준금리 인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7년 중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금리는 美 금리상승에 동조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기업수익성 악화,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국고채와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중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말 1,241원에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가, 6월 브렉시트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급등 후 재차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에는 연저점인 1,090원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들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및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중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간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국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美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영국-EU 간 브렉시트 협상 진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2017년 상반기 중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약달러 정책 및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은 환율 상승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의 업무는 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내외국환 업무 등과 같은 고유업무와 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과 같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업무, 그리고 신탁업무 등과 같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겸영업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16년 은행업은 저성장, 저금리 등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가계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고른 대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외형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조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에 따라 2016년 3분기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1% 성장한 것을 비롯해 가계 신용 및 기타대출(+8.1%), 중소기업대출(+6.4%) 등의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반면 건전성 측면에서는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연체율은 0.75%로 전년 동기 대비 0.10%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로 전년 동기 대비 0.1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순이자마진은 기준금리의 인하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③ 경쟁요소

2017년에는 인구 절벽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 등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금융 회사의 고객 확보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진화되고 디지털화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금융에서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신용카드사는 상기 신용공여 외에도 회원들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16년에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의 전반적 인하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세금·공과금 카드납부 확대, 모바일 결제 급증 등에 따른 카드 이용액 증가와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 코스트 감소, 업계의 비용 절감 노력, 안정적 연체율 관리 등으로 순익 감소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업계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카드 이용액은 407조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고 총채권연체율은 전년 말 1.47%에서 1.4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017년에는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록금·임대료 카드납 허용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여파,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민간소비 약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이 전세계 1위인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의 특성상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도 쉽지 않아 신용카드회사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절벽의 도래로 고객기반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카드사 외 인터넷전문은행·P2P업체 등의 본격적 대두로 업계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격변하는 영업 환경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외형 확대 억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경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5년 수익이 개선되었던 금융투자업은 2016년 들어 주가지수 정체, 브렉시트 등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운용손실이 확대되면서 '16년 3분기까지 누

적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5년 회계연도 7.3%에서 2016년 3분기 5.2%(연환산)로 하락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코스피 지수가 2015년말 1,961포인트에서 2016년 3분기말 2,043포인트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5년 9.6조원에서 2016년 3분기 9.0조원으로 줄어들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ELS의 기초자산이 중국지수로 편중된 가운데 동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헤지거래 비용 등이 증가하며 운용손실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하함에 따라 1%대 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금융투자 상품으로의 자금이동(Money Move)이 예상됨에 따라 고객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부문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16년 3분기 현재 55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 대형사 M&A가 추진되면서 회사별 전략방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테스트베드 운영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거래소 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생존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서는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실제위험률 < 예정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 예정이율), 사업비차익(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7년 생명보험업은 보장성보험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단체보험(퇴직연금 등)의 성장 등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전망입니다. 실제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중심 영업기조로 인해 보장성보험 비중이 2016년 말 전체 수입보험료의 32%를 초과했고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단체보험이 IRP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두자리수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익성 부문에서는 이차역마진 규모 확

대 등으로 인해 이익 규모의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③ 경쟁요소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신계약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차역마진 규모 확대에 수익확보의 어려움 또한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품개발-위험인수-사후관리」 등 보험업 주 영역에서의 혁신을 바탕으로 보험 본연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기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보이익 확대를 통해 가용자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증자,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요소로 제기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법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규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수탁고(AUM)는 2016년 9월말 사상 최초로 900조원(설정액 기준)을 돌파하였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6년 자산운용업계는 전체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수탁고의 증가에 힘입어 2016년 3사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약 5,3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개인 부문 전체 수탁고의 경우 공모주식형 펀드의 감소로 공모시장이 정체되면서 성장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기업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국내 경기상황 및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서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중금리신용대출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출현하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T 콘텐츠 발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CT의 발달과 규제완화로 인해 핀테크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ICT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 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총 9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자산의 전체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481조원, 일임펀드(기관투자가) 438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의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주식 등 증권형 펀드, 채권, MMF 등 단기 유동성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업계의 수익성은 펀드시장 전반의 보수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펀드상품 혁신 방안 등 금융 제도 변경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대체 투자자산 시장 지속 확대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 채권추심업

① 산업의 특성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

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해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는 업무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신용조사업무'는 금융기관 등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로 서류수령대행 등 금융 부대 서비스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신용정보업(신용조회회사 제외)의 전체 산업규모는 약 9,300억원으로 지난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업종인 채권추심업무 (2015년 기준 전체 매출의 68.4%)는 지속적인 매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FRS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확대, 공공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 개인정보 및 채무자 보호 정책 강화,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추심수수료율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개인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산업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신용정보업자의 채권매입 허용 및 조세채권 위임 가능 여부에 따라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추심환경 악화에 따라 비추심(경업, 신용조사 등) 사업부문에 대한 시장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33개로(경영신용정보회사 포함) 이중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전업 신용정보사는 총 22개입니다. 2015년 기준 영업수익 상위 3개 전업신용정보사의 시장점유율은 21.4% 수준으로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으며, 채권위임기관 및 금융회사가 한정적이라 전반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④ 관련법 및 정보의 규제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카) 사모투자업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투자자를 사모로만 모집하는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04년 말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2010년말 148개에서 2016년 6월말 342개로 늘어났으며, 투자약정액도 2010년말 약 27조원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약 6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PEF의 투자약정액이 증가하면서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대규모 기업인수(Buy-out)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영업권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신한금융그룹은 2001년 신한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은행과 비은행간의 균형있는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과 사업모델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World Class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비전인 World Class Financial Group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의 전략목표를 '선도금융그룹 위상 공고화 및 아시아 시장 성공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은 중기전략 실행의 2년차로서 중기전략 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실행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반으로 채널 및 상품/서비스를 혁신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 내부 운영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룹 모바일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 및 신기술 대응을 통해 그룹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및 협업을 통해 신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 상품/서비스 및 수익률 업계 선도지위 확보

그룹 자본시장 사업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이자이익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우수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표상품 수익률 차별화와 고객자산관리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용전략 및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고유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룹 차원의 신탁 및 부동산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대표상품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은퇴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 Glocalization

다양한 방식의 성장을 시도하고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지속성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연계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사간 협업체계를 글로벌 사업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우수 현지직원을 양성하고 현지 고객 중심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지 심사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 고객(Client) 중심의 One Shinhan 가치 창출

금융복합점포를 확대하고 그룹 내 고객 접점 채널 활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융복합 상품/서비스를 발굴해 경쟁력을 키우고 그룹 통합 리워드를 업그레이드하며 교차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룹사 간 인력 교류 확대를 통해 그룹 전문역량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겸직 영역 확대를 검토 및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Shared Service 고도화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룹 공동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 Proactive Risk Management

발생 가능 외부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보하며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능동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정보보호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 전략적 비용 절감 및 자원 재배치 가속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성장 부문으로의 자원 재배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면채널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검직/위수탁 등을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품/서비스/마케팅 비용 효율화와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성 중심의 조직·채널별 인력을 운영하고 중장기 전략 방향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며 지속 가능한 HR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7.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조직문화 정착

따뜻한 금융의 자발적 실천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 중심으로 리더 계층의 코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평가 체계 및 HR 제도, 영업추진 방식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One Shinhan 문화 정립을 위한 소통 및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그룹 차원의 인재를 육성하고 신한 WAY 연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6년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이익 2조 7,748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이익증가 등으로 전년도 2조 3,672억원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안정화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신탁 및 외환 수수료 등 신한은행의 수수료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대출채권 처분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6년 당기순이익 1조 9,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고, 제주은행은 173억원(지분율 감안)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의 경우 신한카드가 7,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고, 신한금융투자는 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4% 감소하였으며, 신한생명보험은 1,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조 457억원으로 그룹 실적의 약 35%(연결조정 등 감안 전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은행과 비은행간 상호 보완적인 이익기여를 통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의 강점이 지속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내 용	계열회사
은행업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카드, 신한은행	
금융투자업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업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생명보험	
기타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신한BNPP자산운용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	신한캐피탈
	저축은행업 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신한저축은행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금융IT서비스 업무	신한데이터시스템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신한아이타스
	채권추심업 부문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신한신용정보
사모투자업 부문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와 계열회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업과의 관계 등 특수성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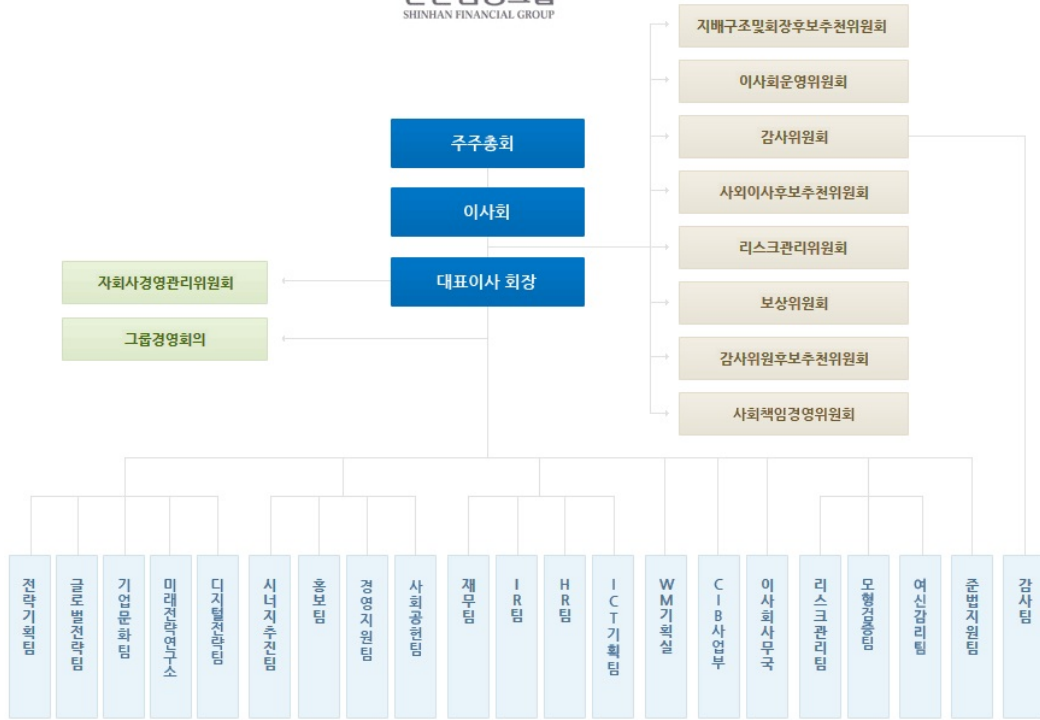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상기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2) 금융산업 동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내용은 민간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사내이사) 조용병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위성호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상경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주재성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Philippe Avril)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만우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상경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성량(Lee Steven Sung-ryang)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말 현재 (주)신한은행, 신한카드(주), 신한금융투자(주), 신한생명보험(주), 신한BNPP자산운용(주)등 13개의 자회사 및 24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영업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6년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이익 2조 7,748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이익증가 등으로 전년도 2조 3,672억원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안정화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신탁 및 외환 수수료 등 신한은행의 수수료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대출채권 처분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6년 당기순이익 1조 9,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고, 제주은행은 173억원(지분율 감안)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의 경우 신한카드가 7,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고, 신한금융투자는 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4% 감소하였으며, 신한생명보험은 1,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조 457억원으로 그룹 실적의 약 35%(연결조정 등 감안 전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은행과 비은행간 상호 보완적인 이익기여를 통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의 강점이 지속되었습니다.

[별도기준 영업현황]

당사는 2016년 중 자회사로부터 2015년에 대한 결산배당으로 1조 6,46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신한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는 신한 브랜드 사용자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2016년 중에는 467억원의 브랜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제16(당)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5(전)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당) 기말	제 15(전) 기말
자 산		
I. 현금 및 예치금	19,181,165	22,024,404
II. 단기매매금융자산	26,695,953	22,638,449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3,416,102	3,244,166
IV. 파생상품자산	3,002,859	1,994,714
V. 대출채권	259,010,575	246,441,361
VI. 매도가능금융자산	37,662,691	33,966,071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19,805,084	16,192,060
VIII. 유형자산	3,145,613	3,055,415
IX. 무형자산	4,226,512	4,266,339
X.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53,600	393,006
XI. 당기법인세자산	12,587	9,740
XII. 이연법인세자산	641,061	163,944
XIII. 투자부동산	353,175	208,717
XIV. 기타자산	18,168,408	15,945,927
XV. 매각예정자산	4,939	3,690
자산 총계	395,680,324	370,548,003
부 채		
I. 예수부채	235,137,958	217,676,428
II. 단기매매금융부채	1,976,760	2,135,390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9,233,642	8,916,332
IV. 파생상품부채	3,528,244	2,599,288
V. 차입부채	25,294,241	21,733,865
VI. 사채	44,326,785	41,221,284
VII. 확정급여부채	130,879	226,130
VIII. 총당부채	728,888	698,788
IX. 당기법인세부채	272,728	142,014
X. 이연법인세부채	10,638	16,154
XI. 보험계약부채	22,377,434	20,058,284
XII. 기타부채	20,917,147	23,310,990
부채 총계	363,935,344	338,734,947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1,109,698	30,839,655
(1) 자본금	2,645,053	2,645,053
(2) 신증자본증권	498,316	736,898

(3) 자본잉여금	9,887,335	9,887,335
(4) 자본조정	(458,461)	(423,536)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2,583)	304,771
(6) 이익잉여금	18,640,038	17,689,134
II.비지배지분	635,282	973,401
자본 총계	31,744,980	31,813,056
부채와 자본 총계	395,680,324	370,548,003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16(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5(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I.영업이익	3,108,642	2,973,141
(1) 순이자손익	7,205,366	6,692,933
1.이자수익	11,236,302	11,129,704
2.이자비용	(4,030,936)	(4,436,771)
(2) 순수수료손익	1,565,539	1,620,979
1.수수료수익	3,803,596	3,896,529
2.수수료비용	(2,238,057)	(2,275,550)
(3) 보험손익	(418,504)	(432,161)
1.보험수익	4,586,098	4,447,828
2.보험비용	(5,004,602)	(4,879,989)
(4) 배당수익	281,623	308,277
(5)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270,810	(344,098)
(6) 외환거래손익	560,371	78,236
(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501,955)	459,765
(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647,541	772,474
(9)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1,195,663)	(1,264,053)
1.대손상각비	(1,107,633)	(1,021,711)
2.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88,030)	(242,342)
(10) 일반관리비	(4,508,575)	(4,475,068)
(11) 기타영업손익	(797,911)	(444,143)
II.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9,995	20,971
III.기타영업외손익	51,835	146,465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70,472	3,140,577
V.법인세비용	345,553	694,619
VI.당기순이익	2,824,919	2,445,958
VII.기타포괄손익	(409,150)	(336,6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424,455)		(254,581)
(1) 해외사업환산손익	12,103		(6,46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33,657)		(265,990)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2,691		11,854	
(4) 현금흐름위험회피	(1,262)		2,932	
(5) 특별계정포괄손익	(4,330)		3,09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5,305		(82,043)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307		(81,813)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2)		(230)	
VIII. 총포괄이익		2,415,769		2,109,334
IX. 당기순이익의 귀속		2,824,919		2,445,958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774,778		2,367,171	
(2) 비지배지분	50,141		78,787	
X. 총포괄이익의 귀속		2,415,769		2,109,334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367,062		2,034,048	
(2) 비지배지분	48,707		75,286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5,736원		4,789원

3) 연결자본변동표

제16(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5(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총계
1. 2015년 1월 11일 (전기초)	2,645,053	537,443	9,887,335	(393,405)	637,894	15,869,779	1,330,809	30,514,908
총포괄이익:	-	-	-	-	(333,123)	2,367,171	75,286	2,109,334
(1) 당기순이익	-	-	-	-	-	2,367,171	78,787	2,445,958
(2) 기타포괄손익	-	-	-	-	(333,123)	-	(3,501)	(336,624)
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5,630)	-	(839)	(6,46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65,910)	-	(80)	(265,990)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11,624	-	-	11,624
4.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2,932	-	-	2,932
5. 특별계정포괄손익	-	-	-	-	3,092	-	-	3,092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79,231)	-	(2,582)	(81,813)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99,455	-	(30,131)	-	(547,816)	(432,694)	(811,186)
(1) 연차배당	-	-	-	-	-	(512,428)	-	(512,428)
(2) 신종자본증권 이차	-	-	-	-	-	(34,488)	-	(34,488)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199,455	-	-	-	-	-	199,455
(4)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30,131)	-	(900)	-	(31,031)
(5) 기타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432,694)	(432,694)

II. 2015년 12월 31일 (전기말)	2,645,053	736,898	9,887,335	(423,536)	304,771	17,689,134	973,401	31,813,056
III. 2016년 1월 1일 (당기초)	2,645,053	736,898	9,887,335	(423,536)	304,771	17,689,134	969,981	31,809,636
사업결합관련 소급조정	-	-	-	-	-	-	3,420	3,420
조정후 금액	2,645,053	736,898	9,887,335	(423,536)	304,771	17,689,134	973,401	31,813,056
총포괄이익:	-	-	-	-	(407,716)	2,774,778	48,707	2,415,769
(1) 당기순이익	-	-	-	-	-	2,774,778	50,141	2,824,919
(2) 기타포괄손익	-	-	-	-	(407,716)	-	(1,434)	(409,150)
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2,012	-	91	12,10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32,530)	-	(1,127)	(433,657)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2,689	-	-	2,689
4.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1,262)	-	-	(1,262)
5. 특별계정포괄손익	-	-	-	-	(4,330)	-	-	(4,330)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5,705	-	(398)	15,307
소유주와의 거래 등:	-	(238,582)	-	(34,925)	362	(1,823,874)	(386,826)	(2,483,845)
(1) 연차배당	-	-	-	-	-	(630,978)	-	(630,978)
(2)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36,091)	-	(36,091)
(3) 신종자본증권 상환	-	(238,582)	-	(1,418)	-	-	-	(240,000)
(4) 상환우선주의 상환	-	-	-	-	-	(1,125,906)	-	(1,125,906)
(5)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33,507)	362	(30,899)	-	(64,044)
(6) 기타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386,826)	(386,826)
IV. 2016년 12월 31일 (당기말)	2,645,053	498,316	9,887,335	(458,461)	(102,583)	18,640,038	635,282	31,744,980

4) 연결현금흐름표

제 16(당)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97,177	2,970,314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70,472	3,140,577
(2) 손익조정사항	(7,486,989)	(7,001,210)
1. 이자수익	(11,236,302)	(11,129,704)
2. 이자비용	4,030,936	4,436,771
3. 배당수익	(281,623)	(308,277)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4,060,618	3,341,253
1. 수수료손익	166,216	168,313
2. 보험손익	2,779,710	2,714,061
3.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143,182	751,811
4. 외환거래손익	(248,844)	163,417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147,813	(748,959)
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647,541)	(772,474)
7. 대손상각비	1,107,633	1,021,711
8. 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88,030	242,342

9. 종업원급여	203,639		185,222	
10. 감가상각비및기타상각비	259,941		278,882	
11. 기타영업손익	70,236		(623,639)	
12. 관계회사 이익에 대한 지분	(9,995)		(20,971)	
13. 기타영업외손익	598		(18,463)	
(4) 자산·부채의증감	(2,724,387)		(2,401,949)	
1. 예치금	3,937,005		(1,926,814)	
2. 단기매매금융자산	(4,343,206)		1,583,631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2,439)		210,582	
4. 파생상품	(435,650)		(382,276)	
5. 대출채권	(11,351,121)		(24,731,045)	
6. 기타자산	(4,627,748)		(3,562,267)	
7. 예수부채	16,771,470		23,246,539	
8. 확정급여부채	(261,550)		(347,926)	
9. 총당부채	(77,514)		(71,272)	
10. 기타부채	(2,333,634)		3,578,899	
(5) 법인세의 납부	(561,604)		(640,393)	
(6) 이자의 수취	11,109,313		10,921,869	
(7) 이자의 지급	(4,080,122)		(4,700,685)	
(8) 배당금의 수취	309,876		310,85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596,206)		(5,288,599)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29,242,921		31,592,380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2,844,558)		(33,755,811)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1,839,275		2,414,031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5,277,451)		(5,150,329)	
5. 유형자산의 처분	6,609		8,760	
6. 유형자산의 취득	(260,780)		(124,844)	
7. 무형자산의 처분	8,217		5,463	
8. 무형자산의 취득	(83,277)		(132,636)	
9.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처분	67,082		35,396	
10.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취득	(145,119)		(30,927)	
11. 투자부동산의 처분	22,900		16,171	
12. 투자부동산의 취득	(176,204)		(10,296)	
1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2,213		88,235	
14. 기타자산의 증감	48,156		(22,173)	
1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7,265		5,000	
1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9,175)		(63,847)	
17.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흐름	(4,280)		(163,17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46,952		1,312,750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99,455	
2.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240,000)		-	

3. 차입부채의 순증가	3,392,164		(1,557,883)	
4. 사채의 발행	15,916,866		16,512,720	
5. 사채의 상환	(11,988,965)		(12,867,244)	
6. 기타부채의 증감	(824)		(7,258)	
7. 상환우선주의 상환	(1,125,906)		-	
8. 배당금의 지급	(669,103)		(546,160)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5,414		23,270	
10.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486)		(17,342)	
11. 비지배지분의 증감	(451,208)		(426,808)	
IV.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2,638)		8,375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25,285		(997,160)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607,251		5,604,411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632,536		4,607,251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일자로 지배기업은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 자 회 사	피투자회사(*1)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제16(당)기말	제15(전)기말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12월	100	100
"	신한카드	"	"	100	100
"	신한금융투자	"	"	100	100
"	신한생명	"	"	100	100
"	신한캐피탈	"	"	100	100
"	제주은행	"	"	68.9	68.9
"	신한신용정보	"	"	100	100

"	신한프라이빗에쿼티	"	"	100	100
"	신한BNPP자산운용	"	"	65	65
"	SHC매니지먼트	"	"	100	100
"	신한데이터시스템	"	"	100	100
"	신한저축은행	"	"	100	100
"	신한아이타스	"	"	99.8	99.8
신한은행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홍콩	"	99.9	99.9
"	아메리카신한은행	미국	"	100	100
"	유럽신한은행	독일	"	100	100
"	신한크메르은행(*2)	캄보디아	"	90	90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카자흐스탄	"	100	100
"	캐나다신한은행	캐나다	"	100	100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	100	100
"	SBJ은행	일본	"	100	100
"	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	100	100
"	멕시코신한은행	멕시코	"	100	100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	98.98	97.76
"	PT Centratama Nasional Bank	"	-	-	75
신한카드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카자흐스탄	"	100	100
"	신한인도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50	50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100	-
신한금융투자	Shinhan Investment America	미국	"	100	100
"	Shinhan Investment Asia	홍콩	"	100	100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베트남	"	100	100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	99	-
신한프라이빗에쿼티	한국씨엔티	대한민국	-	-	100
신한BNPP자산운용	Shinhan BNP ASSET MGT HK Ltd.	홍콩	12월	100	100

(*1)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
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신한저축은행의 지분 3.3%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대상 사유
신탁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5개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유동화 증권	엠피씨올촌그린제일차 외 57개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구조화금융	SHPE홀딩즈원 유한회사 외 3개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투자펀드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 챔프2010-4 외 52개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기술한 대로 5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보고부문들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구조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최고 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2)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계약: 약정일의 계약상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류
- 우발부채: 현재의무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보상자산: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재취득한 권리: 특별규정에 따라 측정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 매각예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 외의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연결실체의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인 경우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

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최초거래일 손익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인 최초거래일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이연최초거래일 손익은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대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손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 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직접 환입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년
기타의 유형자산	4년 ~ 5년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기 타	5년 또는 계약기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12) 리스

1) 리스의 분류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연결실체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이 구분 기준에 따라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되며 지급되는 분배금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조정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9)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

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총당부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는당해 금융보증계약의 기간 동안 상각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당해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지급 금액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 보험계약

1)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투자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책임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동 준비금은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재무상태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납입될 순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3) 보증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장래 예상되는 순손실액의 상위 30% 평균금액과 보험종류별·최저보증별 표준 적립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4) 지급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환급금 또는 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보험금 지급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율에 근거하여 추산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기발생 계약자 배당준비금 및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예정계약소멸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① 금리차보장준비금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계약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이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율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③ 이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금리차보장이율을 가감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에 미달한 경우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④ 사업비차배당준비금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⑤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전기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장기유지특별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⑥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계약자지분조정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당해 회계연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부채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출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재보험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미상각신계약비

연결실체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단, 예정미상각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수익 · 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특정한 대출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고, 그 대출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지분증권의 분류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적정한 손익항목으로 표시됩니다.

(24)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에 따라서,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이하 '포인트')와 수수료 수익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상을 결제 대금 할인 및 사은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회수될 포인트에 대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의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인식 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포인트에서 금전적 대가 등과교환되어 회수될 포인트의 상대적 크기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최초 매출 시점에 보상 점수에 배분된 수익으로 인식되지 못한 금액 등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총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모법인인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타회계계정차(신탁계정미지급금)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이를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

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16(당)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5(전)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당) 기말	제 15(전) 기말
자 산		
Ⅰ.현금 및 예치금	42	500,815
Ⅱ.단기매매금융자산	195,026	517,597
Ⅲ.대출채권	934,664	1,234,622
Ⅳ.유형자산	877	768
Ⅴ.무형자산	5,659	4,383
Ⅵ.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5,703,159	25,203,159
Ⅶ.이연법인세자산	4,307	4,596
Ⅷ.기타자산	351,873	209,547
자산총계	27,195,607	27,675,487
부 채		
Ⅰ.차입부채	5,000	5,000
Ⅱ.사채	6,583,308	6,642,830
Ⅲ.확정급여부채	4,158	3,855
Ⅳ.기타부채	385,280	242,816
부채총계	6,977,746	6,894,501
자 본		
Ⅰ.자본금	2,645,053	2,645,053
Ⅱ.신종자본증권	498,316	736,898
Ⅲ.자본잉여금	9,494,842	9,494,842
Ⅳ.자본조정	(1,418)	-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01)	(4,501)
Ⅵ.이익잉여금	7,585,969	7,908,694
자본총계	20,217,861	20,780,986
부채와자본총계	27,195,607	27,675,487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16(당)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15(전)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영업이익		1,470,849		892,091
(1) 순이자손익		(160,327)		(182,440)
1.이자수익	37,192		58,872	
2.이자비용	(197,519)		(241,312)	
(2) 순수수료손익		46,546		69,903
1.수수료수익	46,713		70,024	
2.수수료비용	(167)		(121)	
(3) 배당수익		1,646,139		1,063,347
(4)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이익		9,774		9,706
(5)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106		(2)
(6) 일반관리비		(71,389)		(68,423)
II.영업외손익		(183)		(317)
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0,666		891,774
IV.법인세비용(수익)		416		(1,267)
V.당기순이익		1,470,250		893,041
VI.기타포괄손익		(400)		2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00)		287	
VII.총포괄이익		1,469,850		893,328
VIII.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985원		1,680원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 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처분예정일 : 2017년 3월 23일		처분확정일 : 2016년 3월 24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5,731,133		6,143,82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422,880		5,285,274	
2. 상환우선주의 상환	(1,125,906)		-	
3. 신종자본증권 이자	(36,091)		(34,488)	
4. 당기순이익	1,470,250		893,041	
II. 대손준비금환입액		3,191		-
합계 (I + II)		5,734,324		6,143,827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838,032		720,947
1. 이익준비금	147,025		89,304	
2. 배당금	687,589		630,978	

가. 보통주배당금	687,589		569,040	
(주당배당금 : 당기 1,450원, 전기 1,200원)				
나. 우선주배당금	-		61,938	
3. 대손준비금전입액	-		665	
4.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00		-	
5.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1,418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96,292		5,422,880

4) 자본변동표

제 16(당)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15(전)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I. 2015년 1월 1일(전기초)	2,645,053	537,443	9,494,842	-	(4,788)	7,562,569	20,235,119
총포괄이익:	-	-	-	-	287	893,041	893,328
(1) 당기순이익	-	-	-	-	-	893,041	893,041
(2) 기타포괄손익	-	-	-	-	287	-	287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87	-	287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99,455	-	-	-	(546,916)	(347,461)
(1) 연차배당	-	-	-	-	-	(512,428)	(512,428)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34,488)	(34,488)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199,455	-	-	-	-	199,455
II. 2015년 12월 31일(전기말)	2,645,053	736,898	9,494,842	-	(4,501)	7,908,694	20,780,986
III. 2016년 1월 1일(당기초)	2,645,053	736,898	9,494,842	-	(4,501)	7,908,694	20,780,986
총포괄이익:	-	-	-	-	(400)	1,470,250	1,469,850
(1) 당기순이익	-	-	-	-	-	1,470,250	1,470,250
(2) 기타포괄손익	-	-	-	-	(400)	-	(400)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00)	-	(400)
소유주와의 거래 등:	-	(238,582)	-	(1,418)	-	(1,792,975)	(2,032,975)
(1) 연차배당	-	-	-	-	-	(630,978)	(630,978)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36,091)	(36,091)
(3) 상환우선주의 상환	-	-	-	-	-	(1,125,906)	(1,125,906)
(4) 신종자본증권 상환	-	(238,582)	-	(1,418)	-	-	(240,000)
IV. 2016년 12월 31일(당기말)	2,645,053	498,316	9,494,842	(1,418)	(4,901)	7,585,969	20,217,861

5) 현금흐름표

제 16(당)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15(전)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98,037		439,453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0,666		891,774
(2) 손익조정사항		(1,485,812)		(880,907)
1. 이자수익	(37,192)		(58,872)	
2. 이자비용	197,519		241,312	
3. 배당수익	(1,646,139)		(1,063,347)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4,948		4,453
1.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이익	(488)		(1)	
2.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환입)	(106)		2	
3. 종업원급여	4,969		3,766	
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498		640	
5. 영업외손익	75		46	
(4) 자산·부채의 증감		320,716		(456,937)
1. 단기매매금융상품	323,059		(448,258)	
2. 기타자산	1,538		374	
3. 확정급여부채	(2,089)		(2,292)	
4. 기타부채	(1,792)		(6,761)	
(5) 이자의 수취		41,832		57,895
(6) 이자의 지급		(200,452)		(240,172)
(7) 배당금의 수취		1,646,139		1,063,347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308)		102,295
1. 대출채권의 증가	(505,000)		(5,000)	
2. 대출채권의 회수	805,000		107,500	
3. 유형자산의 취득	(456)		(204)	
4. 유형자산의 처분	-		10	
5. 무형자산의 취득	(1,504)		(86)	
6. 무형자산의 처분	1,400		75	
7. 기타자산의 증가	(748)		-	
8.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500,000)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97,596)		(161,652)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99,455	
2.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240,000)		-	
3. 차입부채의 증가	5,000		95,000	
4. 차입부채의 상환	(5,000)		(97,500)	
5. 사채의 발행	1,600,000		1,500,000	
6. 사채의 상환	(1,660,000)		(1,310,000)	
7. 사채발행비의 지급	(2,587)		(2,447)	
8. 배당금지급	(669,103)		(546,160)	
9. 우선주 상환	(1,125,906)		-	
IV.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500,867)		380,096
V.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0,906		120,810
VI.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39		500,906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9월 10일에 당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매매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5) 별도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2017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

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

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5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

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 금융부채에는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 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당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 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제공될 때 일반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인 당사와 당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

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 납부의 주체가 됨에 따라 연결납세기준 미지급법인세 총액을 당사의 부채로 인식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상환우선주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2) 재무제표 중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제37조 (생략)	제1조~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반영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반영
제40조~제47조 (생략)	제40조~제47조 (현행과 같음)	

<p>제48조(위원회)</p> <p>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p> <p>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p> <p>2. 이사회운영위원회</p> <p>3. 감사위원회</p> <p>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5. 리스크관리위원회</p> <p>6. 보상위원회</p> <p>7.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p> <p>8. 사회책임경영위원회</p> <p>② 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8조(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위험관리위원회</p> <p>6. 보수위원회</p> <p>7.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각호 반영</p>
<p>제49조~제50조 (생략)</p>	<p>제49조~제50조 (현행과 같음)</p>	
<p>제5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u>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제1항에서</u>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p> <p>④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p> <p>⑤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p>	<p>제5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반영</p>
<p>제52조~제61조 (생략)</p>	<p>제52조~제61조 (현행과 같음)</p>	
<p>부칙 ~ 부칙(11) (생략)</p> <p>(신설)</p>	<p>부칙 ~ 부칙(11) (현행과 같음)</p> <p>부칙(12)</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3 부터 시행한다.</p>	<p>시행일 부칙 신설</p>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용병	1957-06-30	사내이사	없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성호	1958-06-12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이사회운영위원회

박안순	1945-01-24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 철	1946-04-2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상경	1945-09-20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재성	1956-01-1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히라카와 유키	1960-10-2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필립 에이브릴	1960-04-2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8)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용병	신한은행 은행장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 신한은행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 신한은행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박안순	일본 대성그룹 회장	○ 일본 대성그룹 회장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해당사항 없음
박 철	전)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 한국은행 부총재 ○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해당사항 없음
이상경	이상경법률사무소 변호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주재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김앤장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후보와의 직접관련 없음)
히라카와 유키	(주)레벨리버 대표이사	○ 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레벨리버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필립 에이브릴	BNP Paribas 일본 대표	○ BNP Paribas 증권 일본 현지법인 CEO ○ BNP Paribas 일본 대표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만우	1954-11-22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미 공인회계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전입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경	1945-09-20	사외이사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성량	1955-08-30	사외이사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상경	이상경법률사무소 변호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이성량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2(9)	12(10)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p style="text-align: center;">35억원 (주1)</p> <p>※ 이와 별도로 2016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22,000주 내에서 부여하고, 지급은 2020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함</p>	<p style="text-align: center;">35억원 (주2)</p> <p>※ 이와 별도로 2017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19,600주 내에서 부여하고, 지급은 2021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함</p>
---------------	--	--

(주1) 이와 별도로 2016년 중 과거 주주총회(2010~2013년)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부여한도 범위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 지급될 수 있음.

(주2) 이와 별도로 2017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부여한도 범위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 지급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